

〈지난주 말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지난 주 말씀처럼 나 자신의 브랜드가 진짜 어느 정도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브랜드 순위가 있지만 우리의 브랜드는 세상에서 순위매길 수 없는 0순위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를 가진 여러분을 완전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지키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는데 왜 우리는 염려하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식이 죽어줍니까? 부모가 죽어줍니까? 아닙니다. 영세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브랜드를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랜드를 찾은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이에 나아온지라. 그래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게 함이라.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세워서 전도하고 흑암에 장악된 자들을 빛으로 건져내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걸 지키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유월절 양의 피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해방되어 나온 사람이 걸어가는 여정 속에 첫 열매를 얻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절기에 나아올 때는 빈 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맞고 출 흑암 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 미래에 마지막에 저장할 수 있는 비밀이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세 절기는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비밀을 잊지 말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출 흑암되어서 첫 걸음 속에서 얻어진 열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빈 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주인과 함께라면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고 창고에 저장할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가? 여러분이 이번주에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써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게 마땅합니다. 여기에 답 내셔야 합니다. 여기에

답 낸 자를 하나님은 보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를 보존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나를 보존하신다고 하는데, 육신의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대로 살면 돼요. 생명은 주께 있고 나를 구원하신 그 분이 나를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았다면 그 고민은 버리세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육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 준다는데. 다시 한번 복이 뭔지 찾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길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흑암망대를 빛의 망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의 틀을 다 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의외로 자기 틀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틀에 갇혀 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틀을 깨는 순간에 하나님의 틀이 생깁니다. 내 틀을 깨는 순간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생깁니다. 이 울타리는 더 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틀을 못 깨요.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느라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망대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망대의 축복이 임하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브랜드를 가지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브랜드를 생각하고 살면 내 브랜드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정말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망대를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가지고 걸어가는 절대여정, 그 절대여정 속의 절대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보존과 함께 심판이 따릅니다. 심판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존 속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 날까지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판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심판이 있느냐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심판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성없는 짐승과 같고, 멸망 가운데에서 살다가 죽어서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점과 흠이 있고, 군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저주의 자

식이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이고, 지옥이 예비된 자고, 멸망의 종들이고,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고, 개, 돼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누가? 불의한 자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경건한 자인지, 불의한 자인지, 심판 날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본론〉

1.사랑하는 자들에게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벧후3:1-2)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기억하게 하도록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션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벧후3:3)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예수 믿는데, 전도한대,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자기 맘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6,11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벧후3:4)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에는 보존과 심판의 약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강림의 약속도 비방합니다. 무슨 심판이 있고 강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태어나고 죽었고 우리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지구가 바뀌었냐? 그런데 무슨 강림이고 재림이고 심판이냐? 이게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비방하는 소리입니다. 말세에는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속지 않길 바랍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생성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벧후3:5)

이들은 일부러 하나님께 계심을 잊고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라는 것을 일부러 잊고 일부러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재림의 약속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반복되는 것이지, 무슨 끝이 있느냐?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벧후3:6)

노아 시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

버리고 방탕하게 살며 방주를 짓는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놀리던 그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벧후3:7)

왜 지금 이렇게 지구가 있습니까? 심판 날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심판 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지구입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도꼭지가 지금 날씨에는 절대 안 었니다. 그런데 3개월만 지나면 동파 소식이 들려요. 우리는 3개월 뒤에도 보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는 때가 옵니다. 왜 우리가 원치 않는 범죄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심판 날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이 가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심판 날까지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벧후3:8)

이 말은 세상이 아무리 역사적으로 수천년이 지나고 수만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에서 사람들이 900년 이상 살았습니까?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수천 수만년의 역사가 주님 앞에서는 하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의 개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9)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재림이 있느냐?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답을 못 얻으면 여러분 인생 중 침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후3:10)

그렇게 열려있고 은혜의 날이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아무도 모를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는 이 땅을 놓아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전쟁으로 다 불타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전도자로 살아야 하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오직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벧후3:11-12)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237과 5000종 족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24:14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 제야 끝이 오는,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벧후3:13)

우리는 보존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방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벧후3:14)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벧후3:15)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식구가 되는 놀라운 비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벧후3:16)

오늘 말씀을 억지로 내 자신에 맞춰 해석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임의대로 해

석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벧후3:17)

미혹받지 않도록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벧후3:18)

이게 바로 성령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결론〉

▶주님의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과 경건한 행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의 결론입니다.

▶이번주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번주에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확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당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